

발제 2.

농촌정책 패러다임 전환 - 지역협동생활경제

박영범 이사장
(지역농업네트워크)

농촌정책 패러다임 전환

- 지역협동생활경제



이사장 박영범

RAINET 지역농업네트워크

Contents

- I 거대한 전환기, 새정부 농정공약
- II 중앙-지방 투트랙 균형발전 전략

O' 거대한 전환, 패러다임 전환



문명의 전환 (3차 산업혁명, 제러미 리프킨)

문명의 성격은 에너지 체계가 결정

1차,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화석연료 (석탄, 석유,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태양열, 지열, 풍력)
이기적인 자아	생태학적 자아
근면	공감

또 하나의 요소는 커뮤니케이션 체제

1차,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인쇄, 전화, 라디오, TV	인터넷
수직적 권력	수평적 권력, 협업
중앙집권화된 에너지 관리	분산 에너지 체계

한계비용 제로 사회

공적자본, 시장자본, 사회적자본을 활용, 3차 산업혁명 경제와 **탄소 후 시대로 이행**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도입, **한계비용 제로** 수준 사회로의 전환

극단적 생산성	자본주의의 적, 한계비용 제로
사물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물류 인터넷
협력적 공유사회	생물권, 프로슈머, 협업, 공감
스마트 인프라	새로운 스마트 경제, 분산에너지

- Q **프로슈머** : 3D 프린팅 제품과 에너지를 제로에 가까운 한계비용으로 생산,공유
- Q 커뮤니케이션 인터넷, 에너지 인터넷, 물류 인터넷 결합 : **슈퍼 사물인터넷 플랫폼 창출**
- 경제적 가치사슬 전반을 아우르는 촘촘한 신경 네트워크로 모든 사물과 모든 인간을 연결
 - **빅데이터**를 생성해 커뮤니케이션 인터넷과 에너지 인터넷, 물류 및 운송 인터넷에 공급
 - 사물인터넷 플랫폼은 **분산형 및 피어투피어 성격**
 - 전 세계적인 **협력적 공유사회**, **수평적 경제** 확립
 - 경제적 권력이 소수에서 다수에게로 넘어가고 **경제생활이 민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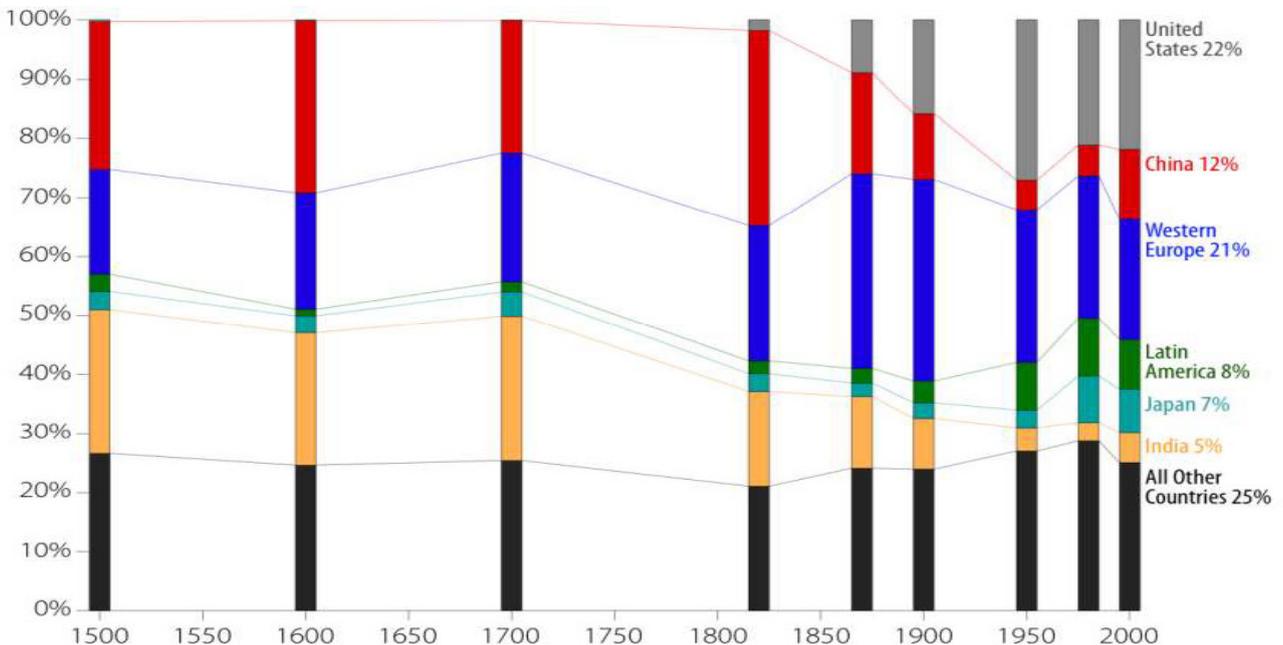
세계경제의 주도권 변화

Visualizing Economics
Making the Invisible Hand Visible

Visit www.visualizingeconomics.com
to view more examples

Percentage of World GDP (last 500 years)

China, India, Japan, Latin America, Western Europe, and United States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

세계경제포럼



2008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10대 메시지

- ① 힘의 이동 : 동쪽, 신흥국, 개인(소비자)
- ② 불확실성
- ③ Reverse-Coupling : 신흥국성장 의존
- ④ 3대펀드 중앙은행 위협 : 국부·헤지·사모펀드
- ⑤ 달러 시대 종말
- ⑥ 새로운 리스크 관리모델 : 글로벌 공조체계
- ⑦ 협력(Collaboration)과 혁신(Innovation)
- ⑧ 창조적 자본주의로 사회공헌
- ⑨ 물 문제
- ⑩ 협력 네트워크

세계사회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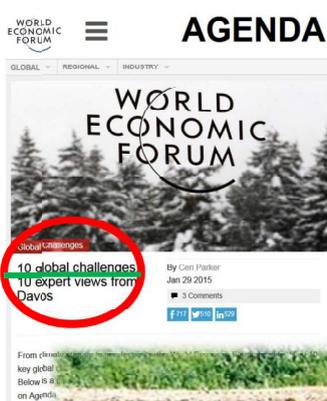


IMF의 폭탄선언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 [아시아경제] 2011년 04월 25일(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은 5년 뒤 중국에 세계 1위 경제대국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 "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같은 기간 세계 GDP 가운데 중국이 18%, 미국이 17.7%

2011년 미국 연방 정부 신용 등급 강등 [위키백과]
2011년 8월 5일, 미국의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미국**이 발행하는 **채권(국채)**의 신용등급을 트리플A(AAA)에서 더블A플러스(AA+)로 강등.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발행하는 유일한 국가인 미국의 달러패권에 금이 가는 상징적 사건



3대 아젠다 : 에너지, 물, 식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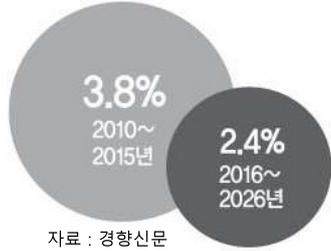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How to help smallholder farmers feed the world. To sustain a population of 9 billion people by 2050, we'll need to produce 60% more food. We can only do this if small farms flourish, writes Gerda Verburg, Chair of the 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Also: The CEOs of Nestlé, Technoserve, Walmart and Yara, as well as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Food Programme on financing the fight against hunger.

Environment and resource security
"From all corners I heard increased commitment to action on climate change." The UN's Christiana Figueres draws four conclusions from Davos.
Also: Nobel Laureate scientists on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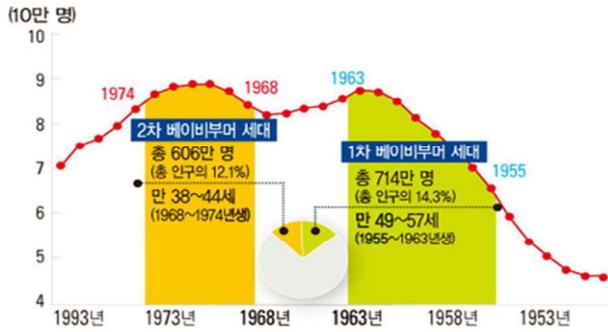


저성장, 고령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추정
한국 잠재성장률



한국의 1차, 2차 베이비부머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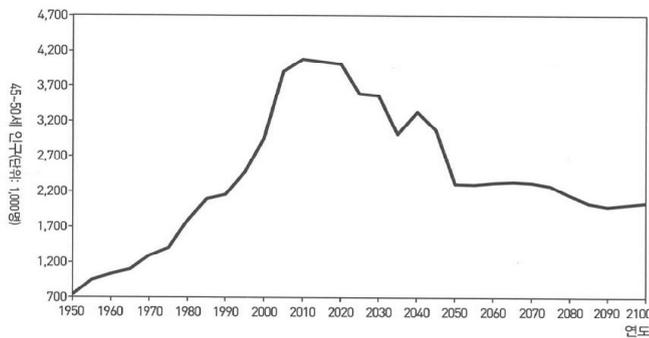


9

RA-ET 지역농업네트워크

인구, 소비 절벽 (해리덴트, 2018 인구절벽이 온다)

|| 도표 1-14 || 1950년~2100년 한국의 소비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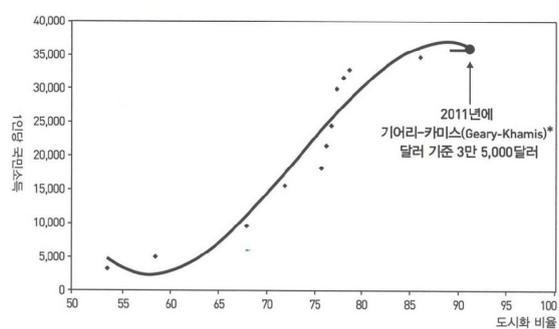


일본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급격하게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40년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과 구매력을 반영한 1인당 국민소득이 6,000달러에서 3만 2,000달러로 늘어났다. 이는 생활수준이 다섯 배 이상 높아졌다는 의미다. 도표 2-4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도 1980년대 초부터 30년도 안 되는 더 짧은 기간 동안 똑같이 급속한 성장을 이뤘다. 국민의 부와 도시화에서 비슷한 수준의 성장을 이루는 데 영국은 200년, 미국은 130년이 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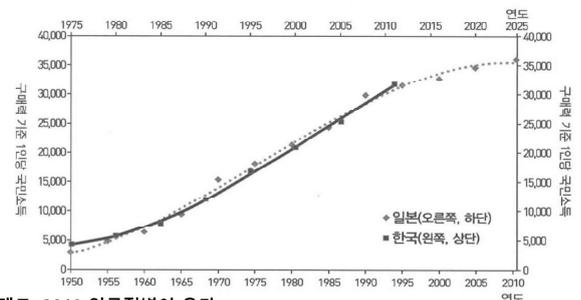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25년 시차를 두고 일본과 비슷한 S자형 모습을 보여왔다. 한국의 인구구조 정점은 일본보다 22년 늦게 도래해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 흐름 정점이 일본보다 22년 늦은 2018년 무렵에 찾아온다. 하지만 유엔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는 매 5년마다 이뤄진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표에서는 한국이 일본에 25년 뒤쳐진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베이비붐 세대가 늦게 출현한 데 따른 인구구조적 영향력이 뚜렷하며 베이비붐 세대의 출현과 경제 발전 사이에도 놀랄 만한 상관관계가 있다.

자료 : 해리 덴트, 2018 인구절벽이 온다

|| 도표 2-3 || 일본의 도시화 비율 대비 1인당 국민소득



|| 도표 2-4 || 25년 시차를 둔 한국과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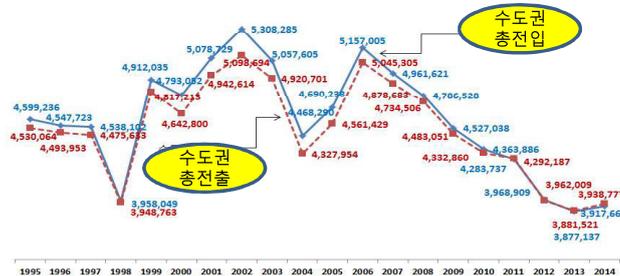
RA-ET 지역농업네트워크

탈도시 인구이동 (김현종, 도시와 농촌간 인구이동 현황과 시사점, 농협조사월보 2015.12)

인구 증가율 감소, 저출산·고령화, 베이비부머의 은퇴, 인구구조 변화, 도시화 정체
지역간 인구이동패턴 변화, 귀농·귀촌,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로부터 농촌으로 유입되는 인구 증가

(표 1) 도시와 농촌인구 추이

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3	2014	
도시	인구	1,295	1,677	2,143	2,644	3,231	3,504	3,747	3,851	4,040	4,126	-
	비중	40.2	48.4	56.2	65.4	74.4	78.6	78.8	80.0	83.2	81.6	-
농촌	인구	1,851	1,791	1,600	1,401	1,110	956	1,006	876	876	930	-
	비중	57.4	51.6	42.0	34.6	25.6	21.5	21.2	18.2	18.0	18.4	-
합계	인구	3,224	3,468	3,812	4,045	4,341	4,455	4,753	4,814	4,858	5,056	5,042
	비중	97.6	100.0	98.2	100.0	100.0	100.1	100.0	98.2	101.2	100.0	-



(그림 1) 전체 인가와 농가인구 추이



귀농귀촌

귀농어·귀촌 가구(가구원) 현황

구분	2015년	2014년	증감률
귀농	11,959가구 (19,860명)	10,758가구 (17,976명)	↑1,201가구 (11.2%)
귀촌	317,409가구 (466,778명)	299,357가구 (439,535명)	↑18,052가구 (6.0%)
귀어	991가구 (1,446명)	917가구 (1,350명)	↑74가구 (8.1%)

귀농어·귀촌 가구주 특성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귀농	♂ 69.4, ♀ 30.6	20대 이하 9.6, 30대 20.0, 40대 40.3, 50대 24.4, 60대 5.7
	♂ 62.4, ♀ 37.6	20대 이하 18.5, 30대 26.2, 40대 19.9, 50대 18.8, 60대 10.2, 70대 5.4
귀어	♂ 68.1, ♀ 31.9	20대 이하 19.3, 30대 24.1, 40대 36.6, 50대 16.1, 60대 3.9

* 귀농·귀어 가구의 경우는 30대 이하

조직적 귀향귀촌귀농

더불어 함께 하는 귀향·귀촌·귀농

- 향후 10년간 50만 가구, 100만명 농촌정착 -

베이비부머와 청장년의
귀향·귀촌·귀농 지원

협동의 지역경제와
공생의 도농관계 구축

민관 협력체계로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

생생 상담

- 기본·전문 상담
- 전문가·지역 맞춤상담
- 주거·일자리·생활 지원
- 재무·자산 컨설팅

생생 교육

- 맞춤식 교육프로그램 개발
- 단계별 맞춤 교육
- 기초·심화·현장 교육
-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생생 사업

- 지자체 협력사업
- 기관·단체·기업 협력
- 공동체사업 육성
- 도농교류사업 지원

생생 연구

- 귀향·귀촌·귀농 정책 개발
- 기관·단체·기업 컨설팅
- 중간지원조직 컨설팅
- 자원조사·지원제도 설계

13

RA-ET 지역농업네트워크

조직적 귀향귀촌귀농

사전 서비스

- 상담
- 교육
- 재무컨설팅
- 정보제공
- 금융지원

- 자원조사
- 지원계획
- 지원조직 육성
- 홍보방안
- 교육프로그램 개발
- 주거지원 방안
- 일자리창출 방안



조합원

지자체 기관 단체 기업 연 론

사후 서비스

- 주거지원
- 일자리 지원
- 재무 컨설팅
- W턴 지원
- 사업 지원

- 홍보, 캠페인
- 지원기관 육성
- 기관, 단체, 기업 협력
- 공동체사업 육성
- 일자리 창출
- 주거단지 개발
- 도농교류 사업

14

RA-ET 지역농업네트워크

더불어 성장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에
책임지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약속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새정부 농정공약

나라를 나라롭게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
국민 모두 건강한 대한민국”**

문재인의 농정정책

- 1편. 농민의 꿈
- 2편. 국가농정,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 3편. 협치농정, 자치농정 실현하겠습니다
- 4편.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 5편. 먹거리가 안전한, 건강한 대한민국
- 6편. 여성 농어업인 위상제고와 미래인력 확보
- 7편. 사람 살맛나는 농어촌 만들겠습니다
- 8편. 일자리 늘리고 미래농업 대비하겠습니다
- 9편. 수산업을 살리고 권익을 높이겠습니다
- 10편. 뿌리와 열매

돈 보다 사람이 중심입니다
국가가 뒷받침하는 농정으로 바꾸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농어민위원회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농민에게 미래의 희망

새정부 농정공약



문재인의 **생생지략**
生生之樂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농민에게 미래의 희망
농어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제1편 농민의 꿈

300만 농민의 꿈은 무엇입니까?

마음 편히 농사 짓고 땅 흘린 만큼 돌려받는 것!
이경해, 백남기 농민 열사의 꿈이고 절실한 요구입니다.

농민은 숨은 공로자입니다

산업화에 필요한 사람과 땅을 내주었습니다.
국민1인당 107평 작은 땅에서 먹거리를 책임졌습니다.
물가안정이란 미명하에 낮은 가격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농정, 완전 실패작입니다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3무 농정입니다.
20년 전으로 후퇴한 쌀값, 오르지 않는 농가소득,
최저생계비 이하 농업소득, 초동방역 실패한 구제역과 시,
무엇보다 농지와 사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농어업과 농어촌을 확대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문재인이 약속합니다!

1. 농정 철학과 기초를 근본부터 바꾸겠습니다
2.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 과감히 바꾸겠습니다
3. 농어촌 지역을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제2편 국가농정,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경쟁과 효율만을 추구한 농정의 결과가 농어업, 농어촌의
위기를 더욱 키웠습니다. 이제 경로를 바꾸어야 합니다!



농정 철학과 기초부터 바꾸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나라
농업의 무한한 가치가 존중받는 나라
협동과 상생의 가치를 포용하는 나라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나라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 바꾸겠습니다

선진국처럼 직불제를 중심에 놓겠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정부 예산을 계속 높여가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을 다시 살리겠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절박한 과제입니다.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 세우겠습니다.
균형발전과 국가뉴딜을 집중 지원하고
도시와 농촌 문제 함께 풀겠습니다.

국민주권 선대위 농어민위원회

새정부 농정공약



문재인의 **생생지략**
生生之樂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농민에게 미래의 희망
농어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제3편 협치농정, 자치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중앙에 권한과 자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향식 농정으로는 복잡한 농업문제를 풀기 어렵습니다



문재인이 약속합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폐지한
협치기구 부활하겠습니다.
농어민과 국민이 함께 종합 먹거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통일농업 대비하겠습니다.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하겠습니다

농어민의 농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현장 농어민의 목소리를
농정에 담아내겠습니다.

제4편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농어민의 큰 걱정은 가격과 판로입니다. 농어민에게 쌀값의
폭락은 재난입니다. 자연재해와 작업 중 부상도 걱정입니다.
생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문재인이 약속합니다!

쌀값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쌀 목표가격 물가인상을 반영하겠습니다.
강력한 생산조정제 시행하겠습니다.
쌀 소비촉진, 대북, 해외지원 하겠습니다.

가격과 판로 걱정 덜어드리겠습니다

판매사업 잘하는 협동조합 길러내겠습니다.
품목별 광역-전국 조직 육성하겠습니다.
마케팅보드로 자율수급조절 지원하겠습니다.
농촌농협과 도시생협의 협동 지원하겠습니다.

농어업재해, 농어민산재 국가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 지원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업산재보험 시행하겠습니다.

국민주권 선대위 농어민위원회

새정부 농정공약



문재인의 **생생지각**
生生之樂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농민에게 미래의 희망
농어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제5편 먹거리가 안전한, 건강한 대한민국

먹거리의 77%를 수입해 먹는 나라. 전 세계 산해신미가 넘쳐나지만 먹거리 안전이 가장 취약한 나라



문재인이 약속합니다!

국민의 먹거리 불안 해소하겠습니다

생태농업으로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
GMO와 식품표시제 강화하겠습니다.
학교급식에서 GMO 퇴출하겠습니다.
책임있는 방역행정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하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친환경급식 확대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학교 과일급식으로 과수농가 지원하겠습니다.

공공급식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우리농산물로 군대급식 질 향상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취약계층 공공급식 늘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양공급프로그램 도입하겠습니다.

제6편 여성농어업인 위상제고와 미래인력 확보

농촌 여성의 권리와 복지가 미흡합니다.
시골에 농사를 지을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도시청년과 5060 세대가 농어촌에서 새희망을 찾습니다.



문재인이 약속합니다!

여성 농어업인 복지 늘리겠습니다

공동경영주제도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업과 가사 복지지원 늘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정책지원 강화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직불제 도입하겠습니다

40세미만 경영주가 1.4%에 불과합니다.
40세미만 청년농업인직불제 도입하겠습니다.

귀농귀촌과 인생이모작 지원하겠습니다

5060세대 인생이모작 응원합니다.
2030세대 청년 귀농귀촌 강화하겠습니다.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 농지 공급하겠습니다.
농고 농대 교육제도 개편하겠습니다.

국민주권 선대위 농어민위원회

새정부 농정공약



문재인의 **생생지각**
生生之樂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농민에게 미래의 희망
농어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제7편 사람 살맛나는 농어촌 만들겠습니다

농촌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안들리고 지역에는 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초복지가 턱 없이 부족합니다. 젊은 사람이 농어촌을 떠납니다.



문재인이 약속합니다!

보건교육, 교통주거 복지 개선하겠습니다

농어촌 국공립 보육시설 늘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운영하겠습니다.
100원택시로 이동권 보장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 확대하겠습니다.

보건 의료 공공서비스 확대하겠습니다

의료 취약지에 공공병원 설립하겠습니다.
거점 분만지원센터 설치하겠습니다.
방문 보건의로 서비스 확대하겠습니다.

국민의 삶터 쉼터로 조성하겠습니다

국민의 공원으로 농어촌을 가꾸겠습니다.
숲을 국민여가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제8편 일자리 늘리고 미래농업 대비하겠습니다

도시로 사람과 돈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생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의료, 교육, 보육, 주택, 먹거리, 에너지, 특히 일자리가 절대 부족합니다.



문재인이 약속합니다!

중소농과 가족농을 보호하겠습니다

로컬푸드와 6차산업화 확대하겠습니다.
30만 중소농가 소득 향상시키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주민참여형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하겠습니다.
농협, 수협, 신협, 상호금융투자 확대하겠습니다.

4차산업 미래농업 준비하겠습니다

식량, 물, 에너지 위기 대비하겠습니다.
생태농업 연구개발 강화하겠습니다.
ICT 융복합 첨단농업 육성하겠습니다.

국민주권 선대위 농어민위원회

새정부 농정공약



문재인의 생생지각
生生之樂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농민에게 미래의 희망
농어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제9편 수산업을 살리고 권익을 높ی겠습니다

우리 수산업 위기입니다.
작년 수산물 생산량이 처음으로 100만 톤이 무너졌습니다.

문재인이 약속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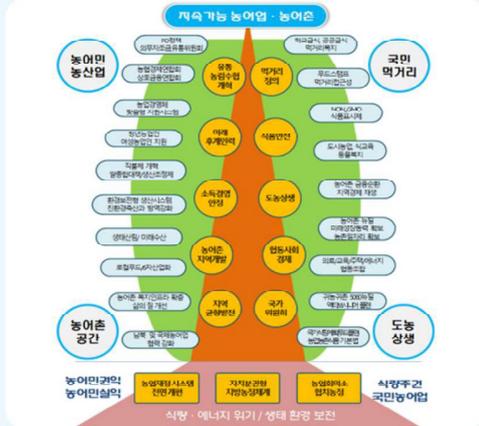
식품산업과 동반성장 지원하겠습니다
수산식품의 해외수출 지원하겠습니다.
항만을 경제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어족자원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겠습니다.

어업인의 권익을 높이겠습니다
수산직물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섬 주인의 정주여건 개선하겠습니다.

농수산업간 형평성 확보하겠습니다
어업인 세제지원 확대하겠습니다.
농업 부문과 형평성 맞추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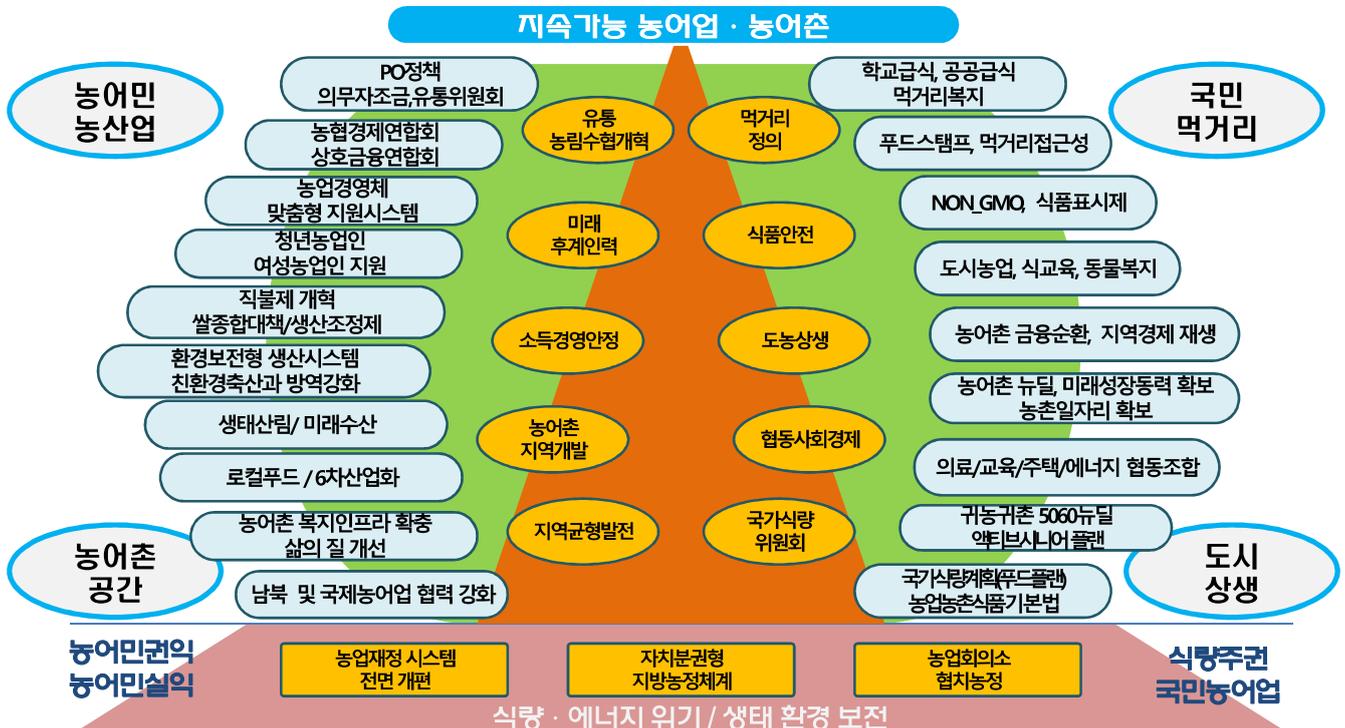
제10편 뿌리와 열매

농경사회를 극복하겠다는 인류의 오랜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는 꿈입니다. 뿌리 없이 건강한 나무는 없습니다.
문재인은 한국농업이 특히 뿌리내리고 우리사회가 탐스러운 열매를 맺도록 국민과 함께 땅 흘려 농사 짓겠습니다.



국민주권 선대위 농어민위원회

새정부 농정공약 : 정책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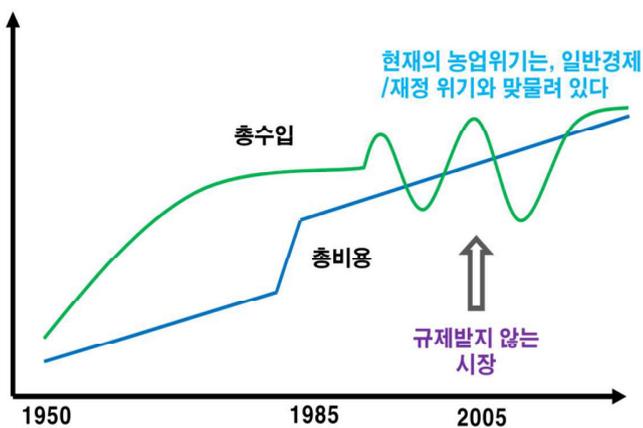
II. 중앙-지방 투트랙전략



농업소득 압착

- 선진국 농업도 저성장, 고령화 및 인구감소, 기후변화, 자유무역 확산 등으로 구조변화
- 농업에 대한 압착 (income squeeze) 심화, 전업농 감소 및 겸업농 증가 현상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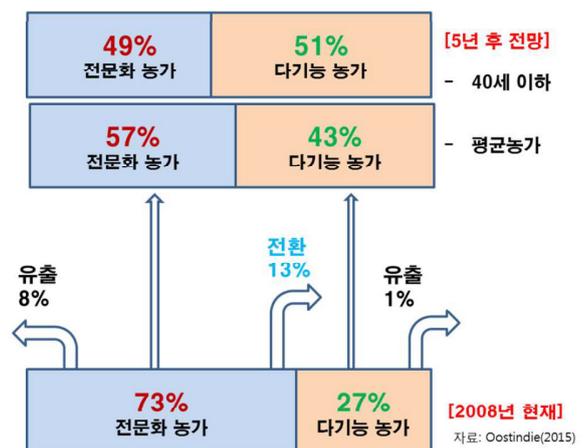
1950~현재까지의 농업소득의 변화



* 자료: Ploeg and Roep(2003)을 기초로 수정

* 자료 : 황수철, 전환아카데미(1차) 강의자료. 2015.

전업농 감소/겸업농 증가 (이탈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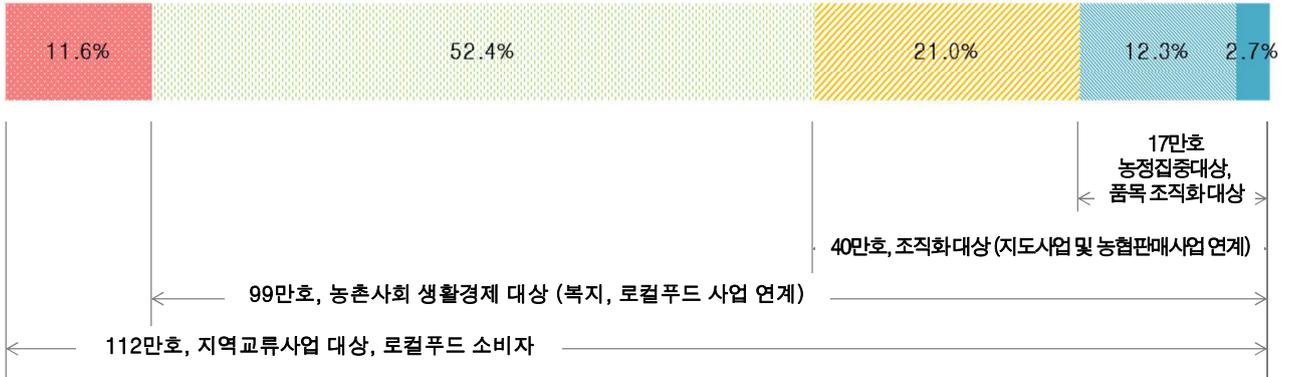


농가구조 변화

- 2014년 기준 판매규모가 1천만원 이상인 농가는 36.0%, 3천만원 이상 농가는 15.0%
- 주요 과수와 시설채소 품목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정체 또는 감소 상태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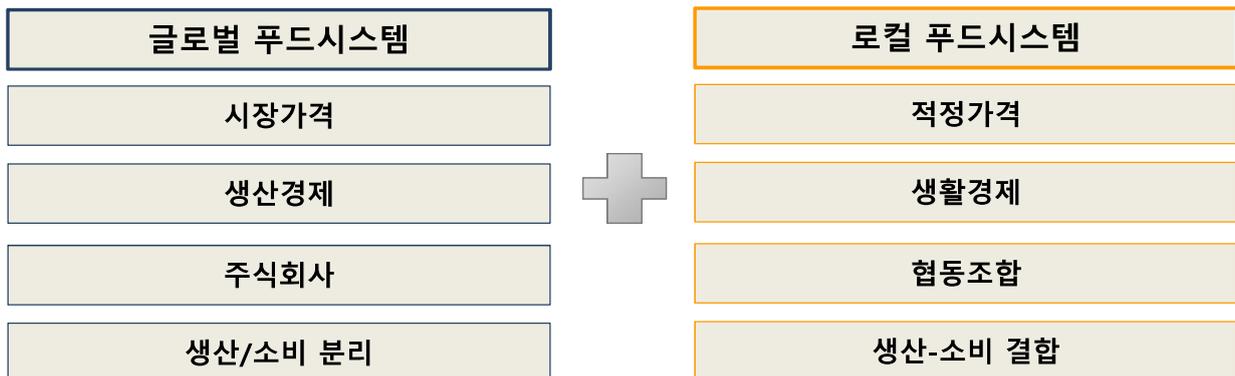
판매규모별 농가

- 제5수준(지역주민, 교류 도시민)
- 제4수준(소규모 생산농가, 1천만원 미만)
- 제3수준(판매농가, 1천만원 이상)
- 제2수준(전업농, 3천만원 이상)
- 제1수준(선진적 법인, 대규모 경영체)



* 자료 : 농축산물 판매규모별 농가, 통계청

관점의 전환



농정의 두 트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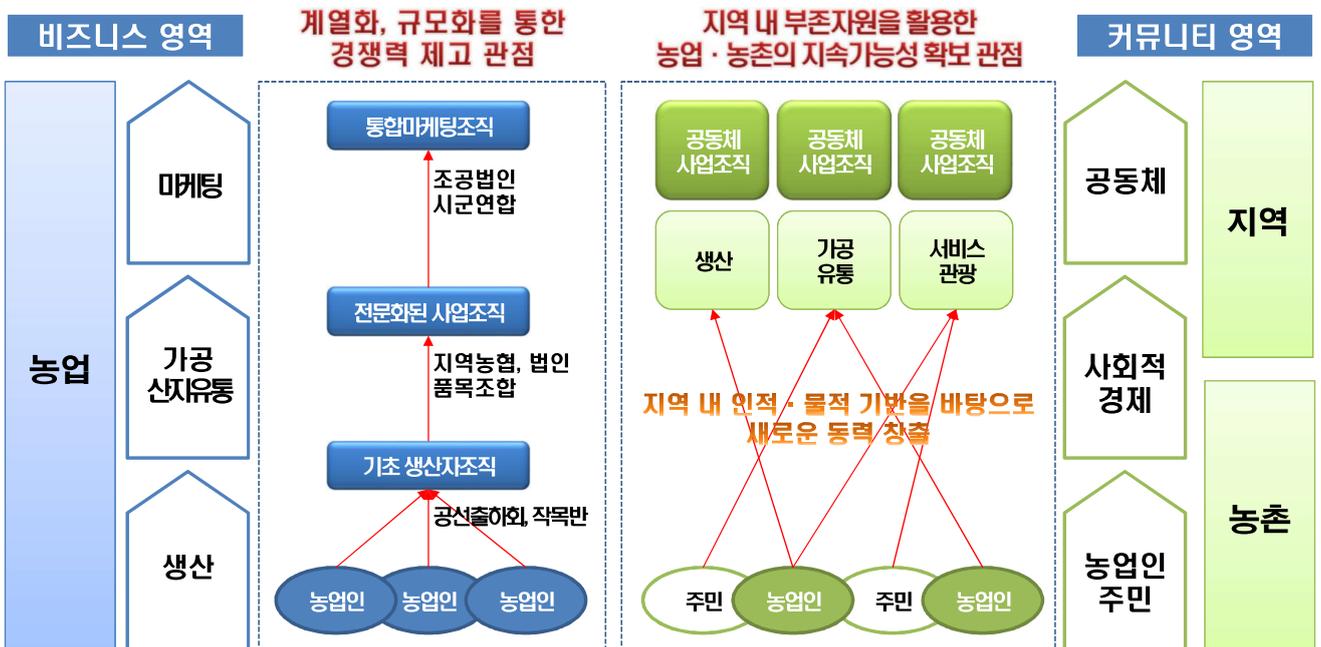
기존 상업농, 전업농은 시장지향, 시장경쟁력 강화영역으로, 이외 농가는 지역순환 영역으로 육성하는 두 트랙(Two-track) 전략



조직화 (품목+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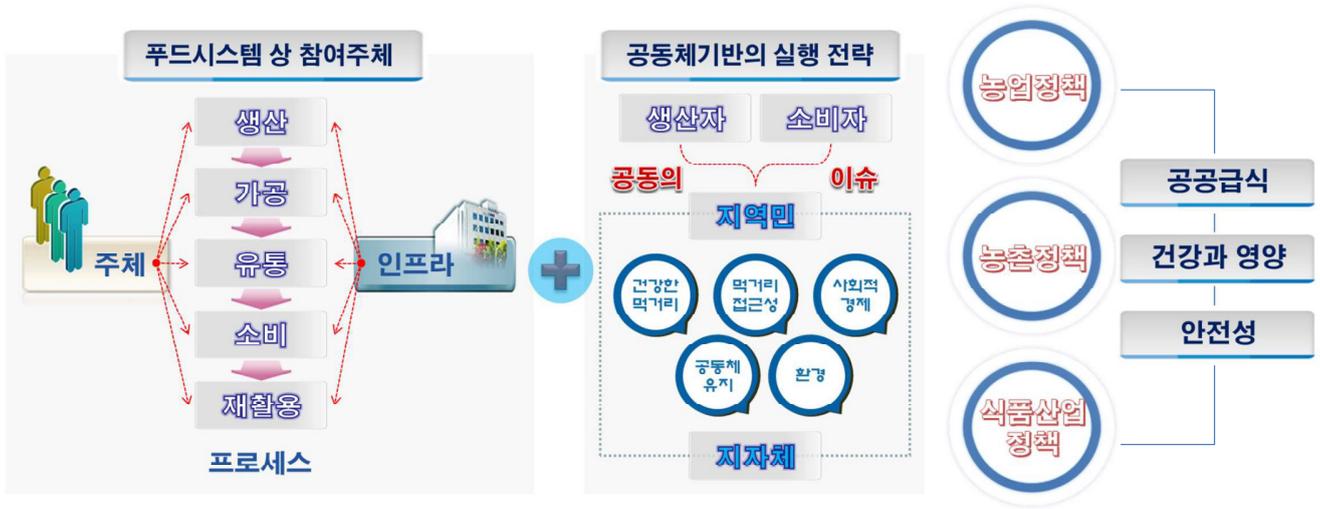
품목별 협업체 육성 영역

마을영농 협업체 육성 영역



농업에서 푸드로

- 0. 푸드플랜은 기존의 생산자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아닌 지역 내 먹거리 수요계층, 푸드시스템 상 산업관계자까지 포괄하는 정책으로 이해해야 함
- 0. 푸드플랜은 먹거리 이동경로 상의 산업관계자를 비롯한 지역민 전체를 참여주체로 설정할 때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푸드'를 지역민 공동의 이슈로 인식할 때 정책개입의 논리 명확



새로운 인식 : 먹거리 정의

산업적 관점을 넘어 먹거리 기본권 관점에서 푸드, 인간생존 필수요소.

밀라노 푸드엑스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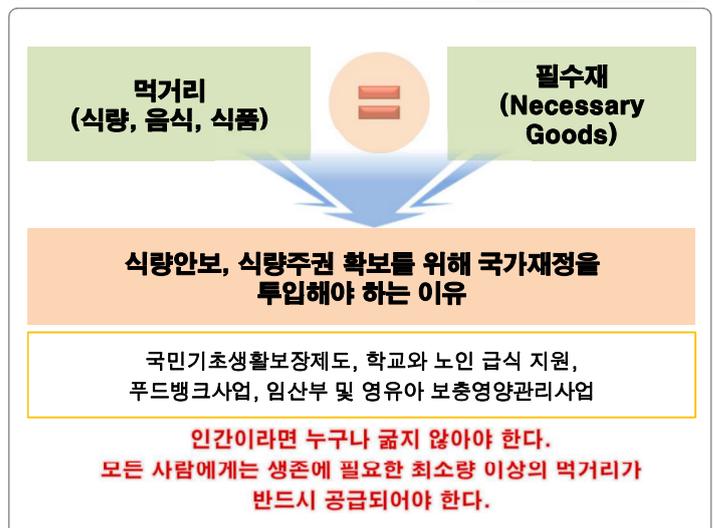
Food Justice / Food Security

먹거리 정의



Food is the first necessity of people.

民以食为天 백성은 식량을 생존의 근본으로 여긴다



밀라노 푸드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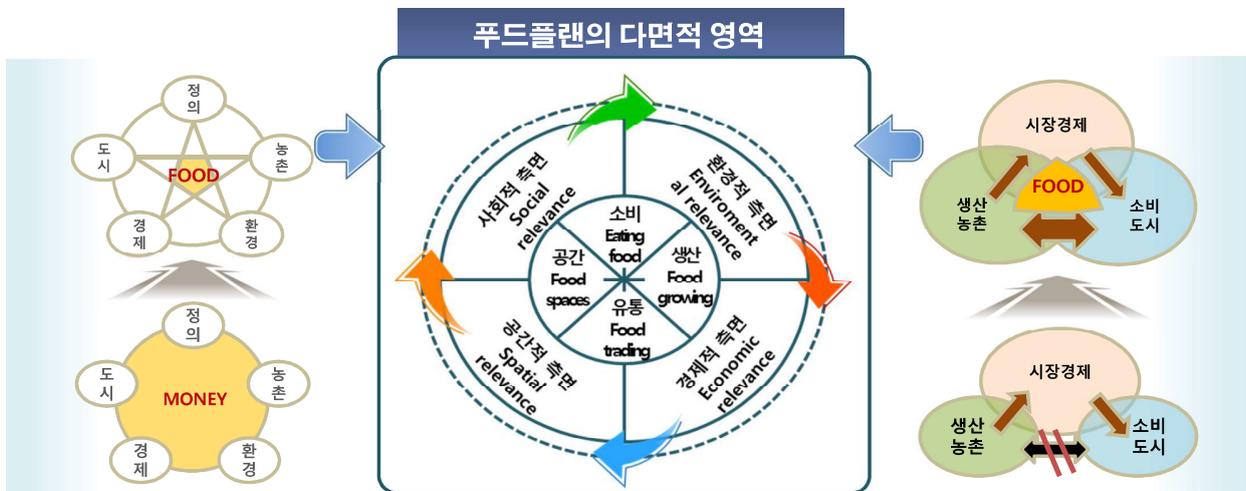
2015밀라노 국제 엑스포 '세계도시 푸드정책 협약' 서명,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 노력

푸드정책 실행 프레임

권장행동	실행과제	비고	권장행동	실행과제	비고
효과적인 실행가능 여건보장 (거버넌스) (6개항)	1. 지방정부 내 기관 및 부서를 넘어서는 협력을 촉진	추진 체계	푸드의 생산 (7개항)	24. 도시주변 생산자에게 실행가능한 서비스 제공 지원	생산 가공
	2. 지역수준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강화			25. 도시-농촌 짧은 체인, 생산자-소비자 네트워크 등 지원	
	3. 지역정책과 시민사회 푸드계획 수립 및 평가 확인			26. 물(폐기물) 관리개선으로 농업·푸드식품생산 재사용	
	4. 지역 푸드정책·계획의 개발수정과 전략적 역량 구축			27. 적절한 푸드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푸드의 흐름을 평가	
	5. 푸드시스템 자료변환 위한 다중정보시스템 개발 증진			28. 푸드의 저장·가공·수송·유통의 개선된 기술 지원	
	6. 푸드시스템 회복력을 위한 재해위험 감소전략 개발			29. 지역푸드 법률·규정에 의해 푸드제어시스템 평가 강화	
지속가능 식생활과 영양 (7개항)	7. 지속가능한 식생활(건강, 안전, 환경, 문화, 권리)의 홍보	식생활 영양	푸드 공급과 유통 (7개항)	30. 모든 푸드의 권리실현 위해 공공조달 가능성 활용	공급 유통
	8. 불량한 식생활 및 비만관련 비전염질병 해결 착수			31. 지자체 공공시장 위해 정책 및 프로그램 지원 제공	
	9. 푸드관련 주제를 위한 지속가능 식생활 지침 개발			32. 지속가능 생계보장 시장 인프라의 지원 확대·개선	
	10. 지속가능 식생활 안전식수 위한 기준과 규정 적용			33. 비공식 부문의 기여를 인정 적절한 지원 교육제공	
	11. 캠페인 수행 자발적이고 규제력 있는 기구의 검토			34. 푸드손실 폐기물 감소 평가·모니터 활동가의 소집	
	12. 사람중심 전략 시행 건강·푸드분야 공동행동 장려			35. 특정대상 목표의 푸드손실과 낭비 인식 제고 활동	
	13. 안전식수 공중위생의 보편적 접근 위한 적절한 투자			36. 연구조사·교육·커뮤니티 조직 등 민간부문과 협력	
사회 경제적 형평성 (6개항)	14. 취약계층 건강푸드 접근을 위한 현금지원과 푸드 공급	접근성	식품 폐기물 (4개항)	37. 안전·영양 푸드시스템의 회복과 재분배 용이 푸드 보전	재활용
	15. 학교급식 프로그램 단체급식 서비스의 방향 전환				
	16. 푸드·농업부문 노동환경 개선, 양질 일자리 촉진				
	17. 소외계층, 도시농촌 푸드관련 사회적 연대활동 장려				
	18. 푸드 네트워크 촉진과 풀뿌리 사업과 활동의 지원				
	19. 지역활동 강화 참여형 교육, 훈련, 연구조사 촉진				
푸드의 생산 (7개항)	20. 도시재생계획 통해 도시와 근교지역 농업을 통합	생산 가공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먹거리의 생산</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먹거리의 공급과 유통</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식품 폐기물</div> </div>		
	21. 도시와 인근 농촌의 푸드생산·가공·유통 추구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거버넌스</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지속가능 식생활과 영양</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사회·경제적 형평성</div> </div>		
	22. 통합된 토지이용계획 관리 위한 생태계접근법 지원				
	23. 지속가능 푸드생산 위해 토지접근과 사용권 안정 보호				

푸드플랜 개념

푸드: 문제해결의 대상에서 수단으로 관점 전환, 사회 전체를 연결하는 중요 분야



농업(식품)에 대한 관점의 변화

생산에 한정되었던 농업의 개념이 유통,가공,식품,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 **문제 해결 대상 ⇒ 문제 해결 수단**

가치사슬의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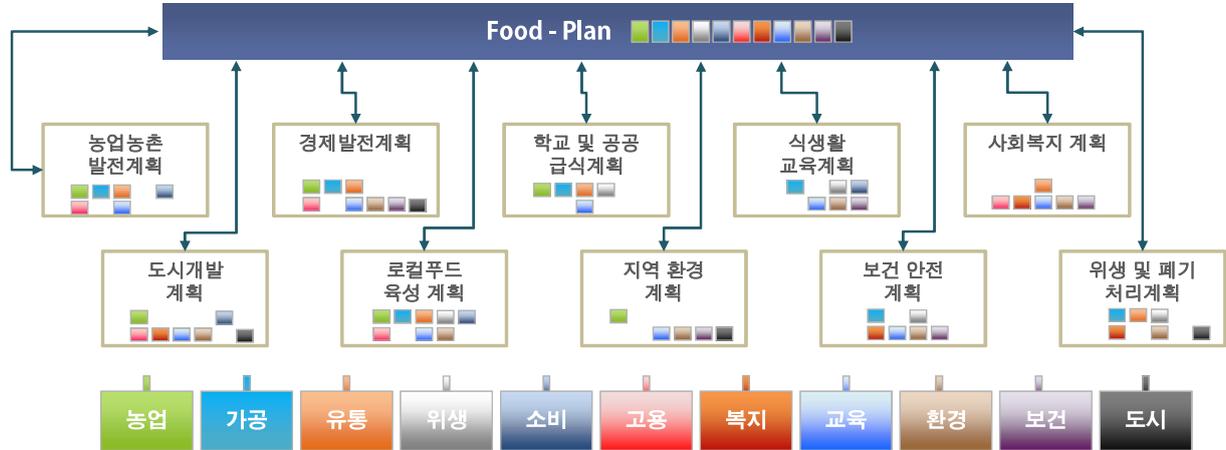
농업의 다기능성

농촌경제 강화

지역자원 개발

푸드플랜의 정책적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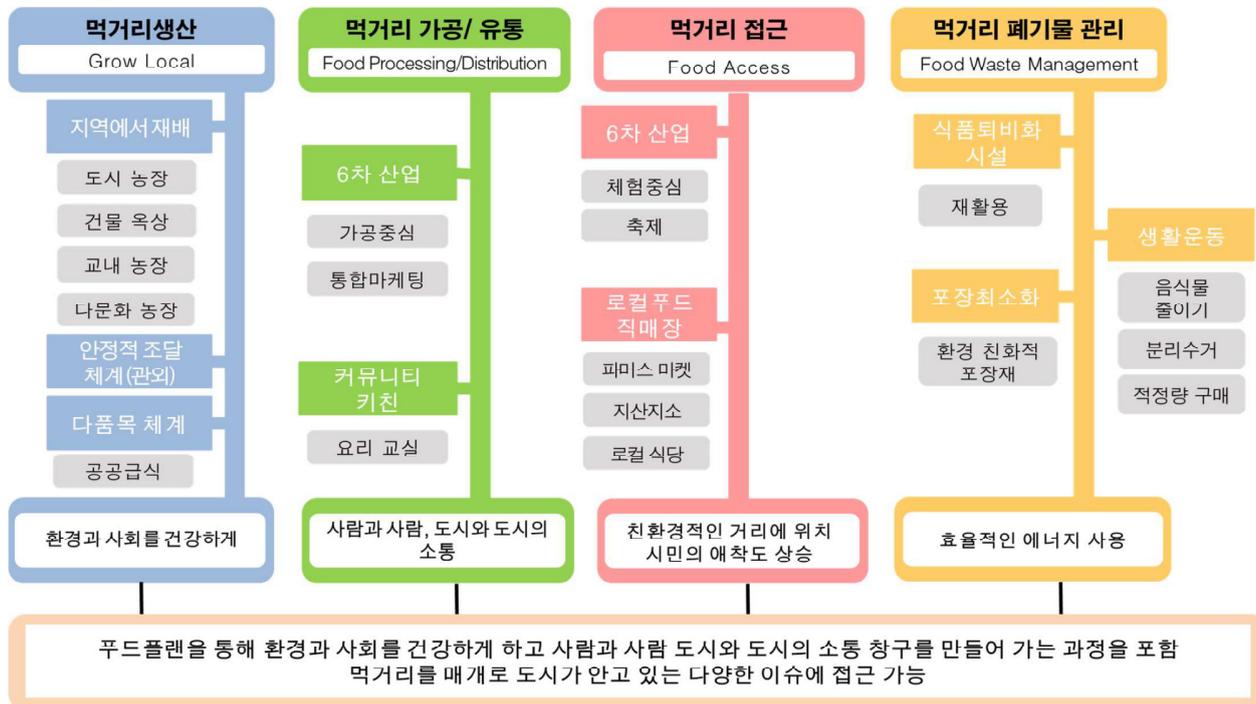
- 0. 푸드플랜은 농업생산-소비 영역 뿐만 아니라 먹거리의 이동경로 전반을 아우르는 사회·경제·문화적 영역을 포함하는 다양한 정책의 연계전략임
- 0. 분야별 정책 및 계획의 효율적 연계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푸드플랜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책적 성과를 창출하기 어려울 것임



밀라노 푸드정책 협약에 제시된 아젠다의 두 가지 축

1축) 먹거리의 생산, 공급과 유통, 식품 폐기물 관리 / 2축) 거버넌스, 지속가능 식생활과 영양, 사회·경제적 형평성

커뮤니티 푸드플랜의 체계



서울시 먹거리마스터플랜(6/20)



37

서울시 먹거리마스터플랜(6/20)

상생분야
식량주권의 첫 걸음, 소농보호
직거래 유통조달체계 확립을 통한 도농상생 공공급식

1단계 생산 산지 지자체
2단계 유통 공공급식센터
3단계 소비 공공급식시설

5~7 유통단계 > 공공급식센터를 통한 3단계
배송비 절감 + 급식의 질 향상 + 농촌의 판로 확보

보장분야
2020년까지 배고픈 서울시민에 대해
양적 지원을 넘어 질적 부족까지 해결하는 시스템 구축

실태조사 기존 18만 가구 + 추가 2만 가구
찾아가는 동사무소 시스템 등을 통한 기초조사

질적 부족 해결 임상영양사 영양관리 & 영양보충식품 공급
6,000 가구

양적 부족 해결 식품 바우처 20,000 가구 지급
(중위소득 80% 이하 중 먹거리지원 필요가구)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

무료급식, 영양관리, 공적부조, 식료품지원, 식품 바우처, 영양보충식지원

I-SEOUL U 15

38

상생분야
지역소농생산자 농산물 판로를 지원하고
서울의 일자리 수요자와 농촌이 일손뱅크를 만들었습니다.

농촌 서울
도농 일자리 교류 확대

서울의 청년, 대학생, 귀농, 귀촌 희망 시민, 베이비 부머세대가
농촌지역 농가와 만납니다

시민과 함께
확장된 미래10년 계획 또한 준비하겠습니다.

2020 먹거리 마스터플랜 → 2030 먹거리 마스터플랜

도시재생시 먹거리 접근성 고려
친환경 급식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줄이기
방사란 확대 등 동물복지 적용
위생점검 민간이전 등 먹거리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업주 스스로 개선 의지 확대 할 수 있도록 민간인증 기관 확대

상생, 보장, 건강, 안전, 공간, 환경,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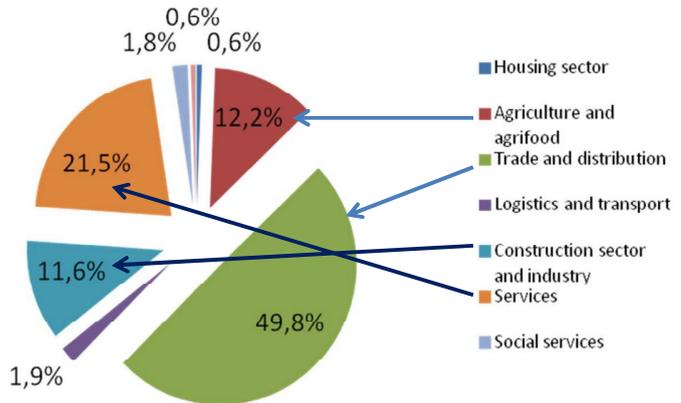
I-SEOUL U 18

협동조합과 지역경제



트렌토COOP

농협 : 92개소, 2.2만조합원, 2,693명고용
 신협 : 57개소, 12만조합원, 2,887명고용
 생협 : 79개소, 10만조합원, 2,663명고용
 노동서비스,주택,사회적 : 295개소, 3만조합원, 1만명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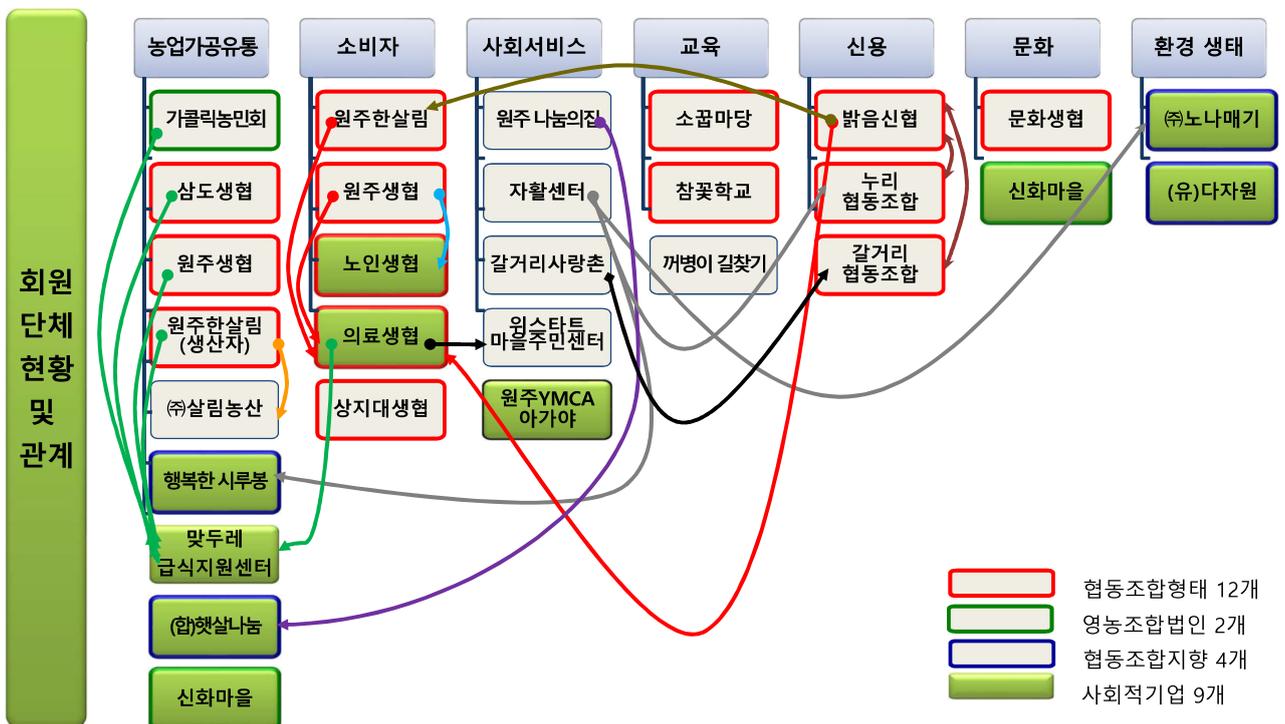


볼로냐 LE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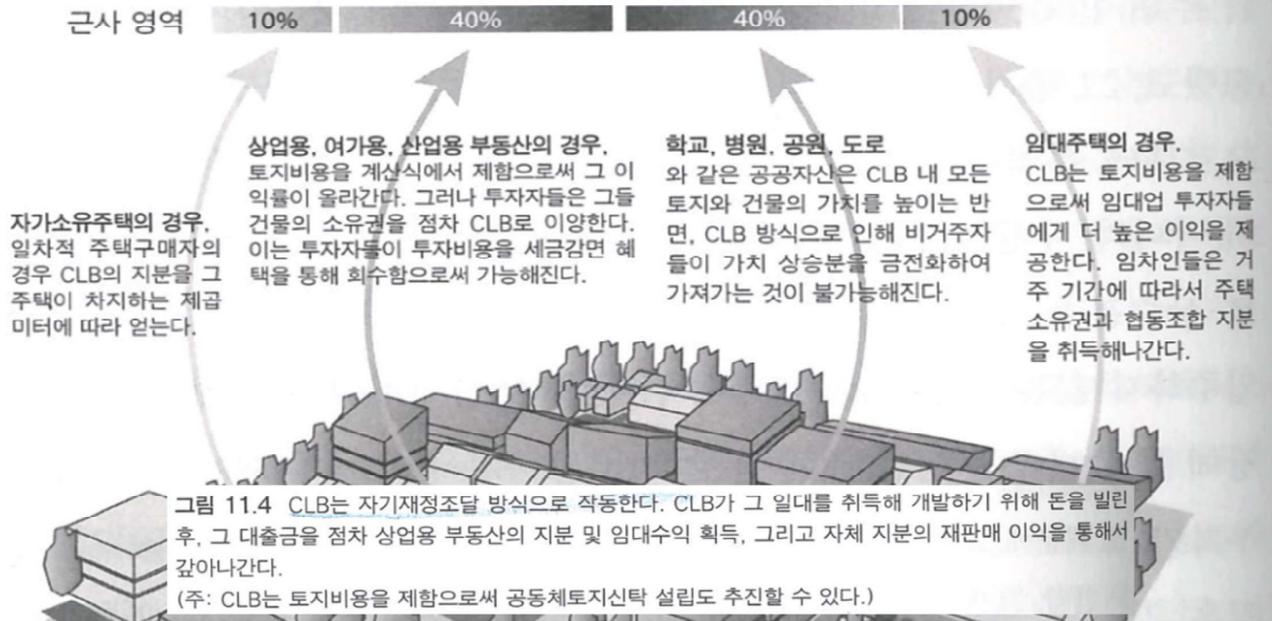
회원조합 235개, 총매출 114억 유로
 총고용 44,000명, 조합원수 1,278,502명
 매출구성 : 농협 12.2%, 생협 등 49.8%
 건설협동조합 등 11.6%, 서비스 21.5%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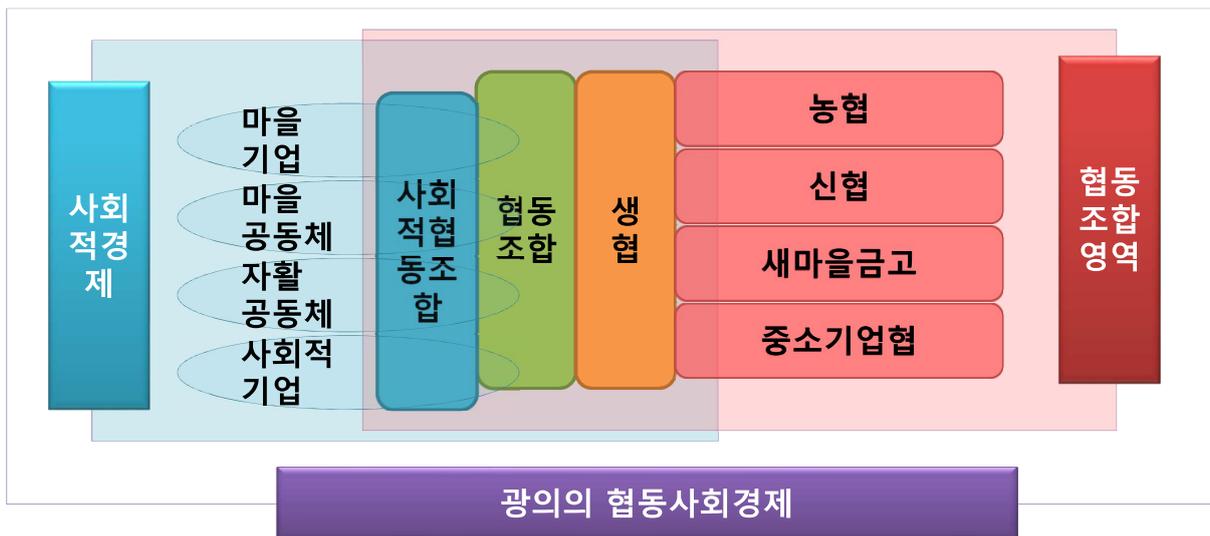
토지은행협동조합(CL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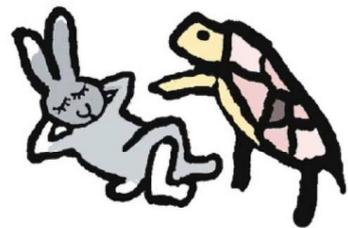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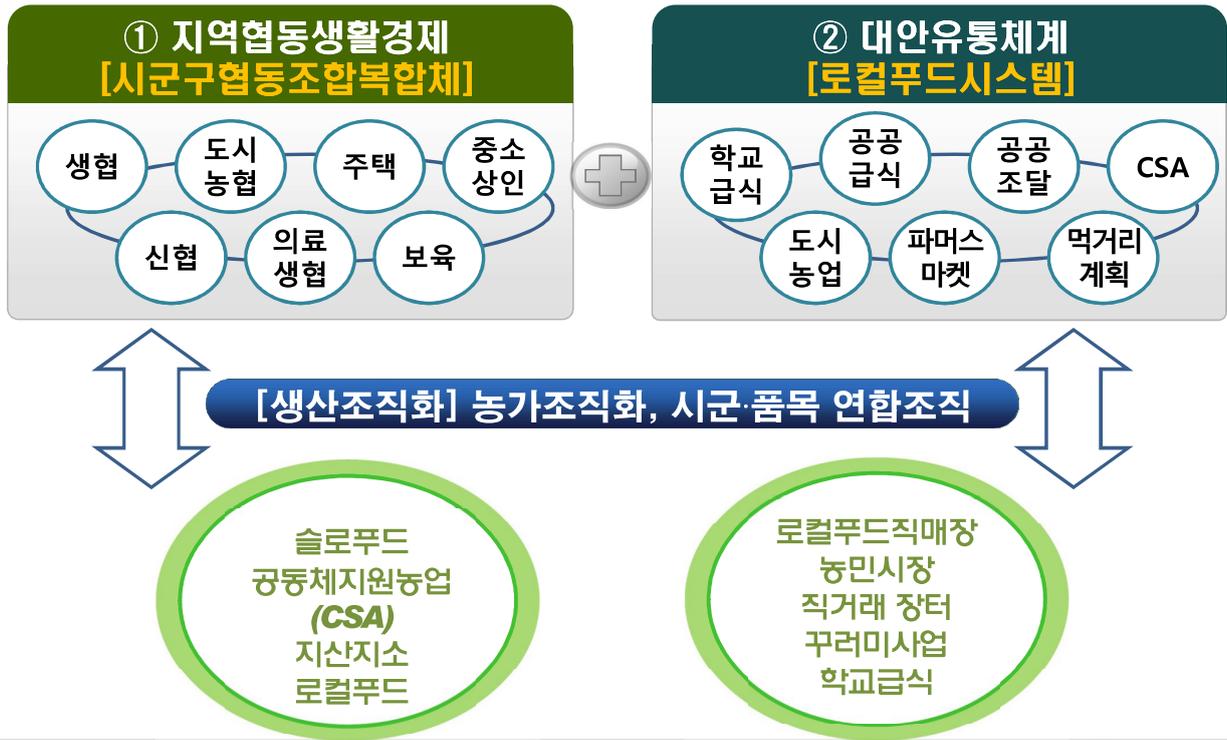
협동조합복합체

I.

- 1 사회적 경제영역과 연계, 지역사회 활성화를 핵심목표로
- 2 개별법 협동조합과 연계, 협동조합 자원 활용을 극대화



지역협동 생활경제



함께가자 우리

토끼를 깨워서 함께가는 거북이가 되어야 합니다.

서적  

